

**최근** 여성운동이 활발해 지며 문학이나 미술 등의 예술영역에서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 화단에 페미니즘 미술시대를 연 서양화가 윤석남 씨(54).

그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여성사를 밝혀내고 여성의 정체성을 성찰하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경계를 파악하려고 애쓴다. 지난 6월 8일부터 4일간 2년동안 작업해온 실험적인 작품들을 '어머니의 눈'이라는 부제를 붙여 선보였다.

초견없는 모성의 힘을 페미니즘 시각의 출발점으로 하는 그는 밥벌이하러 집을 나서야 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얼른 나서지 못하는 어머니 모습을 대문에 새긴 작품,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면서 가문을 지키려 애쓰는 정경부인과 그 이면의 초라한 모습의 씨받이 등 여러 얘기가 담긴 나무작업세트 10점과 밑그림 10점을 전시하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마음깊이 존경하며 어머니를 그리는 게 행복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를 그려냈다. 작가로서의 활동을 어머니가 시작하도록 한 셈이다.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형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여성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어머니라는 매체를 통해 얘기하고 싶어졌다. 술한 모순과 갈등을 겪어온 어머니의 삶에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조차 뚫고 일어설만한 진정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 그는 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을 이해하려 한다. 따라서 그의 어머니는 곧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불혹의 나이에 미술계에 뛰어들어 '집없는 여성'. 그래서인지 그

에게서는 여전히 젊음과 당당함이 풍긴다.

대중역사소설가였던 윤백남 씨의 셋째 딸인 그는 중학교 때 소년신문사가 주최한 작문대회에서 부통령상을 받았고, 프랑스에서 열린 학생미술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그러나 부친의 작고와 함께 다소 경제력이 요구되는 미술공부를 포기해야 했다.

성균관대 영문과를 중퇴하고 결혼하여 딸 하나를 둔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79년.

"사실 미술활동은 경제적 여유 없이 지속하기 어려워요. 마흔살이 되니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에



'대문안에서 밖으로'. 밥벌이하러 집을 나서야 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얼른 나서지 못하는 어머니 모습을 대문에 새겼다.

어머니의 삶 통해 여성사 재조명하는 페미니즘 서양화가 윤석남

“여성문제, 어머니라는 매체 통해 얘기하고 싶어”

미술계에 몇 안되는 페미니즘 작가인 윤석남 씨. 그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소재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머니를 그림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억눌려 살아온 여성을 복권시키고, 모성의 힘을 통해 역사속의 여성을 재조명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를 만났다. ●글·사진/김성숙 기자

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그때까지 미뤄왔던 미술을 공부하기로 했지요.”

82년에 첫 개인전을 열었던 그는 다음해 “1년만 자유롭게 해달라”는 말을 남편에게 남긴채 미국으로 건너가 판화·유화·드로잉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86년 최초의 페미니즘 전시회로 꼽히는 '시월 모임' 2회전에 참여하고 '우리 붓물을 트자'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인문사회과학이나 다른 창작 분야의 페미니스트와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그가 여성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미술대학이라는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 여겨져

요. 어떤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또 화단에서의 관계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주로 나무에 그의 상상력을 담아내고 있다. 우연히 주은 감나무에 그림을 그려 칠하고 힘들게 파내면서 자연소재인 나무가 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반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설치된 나무 전체의 높낮이와 형상의 굴곡, 색채의 명암대비로 풍부하게 엮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통색인 빨강·노랑·남색이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맞다는 그는 이러한 강렬한 원색을 잘 대비시켜 이용하는 방법의 모색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얘기한다. ■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형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여성이 처해있는 문제점을 '어머니'를 통해 얘기하고 싶었다고.